

"전문 건설사 살길은 '저가수주' 자제뿐"

기사입력 2012-10-25 08:00:11 |

폰트 + -



물량감소 · 덩핑경쟁 · 원가급등 · 수익성 악화 · 자금난 '5중고'

/정부 적정공사비 확보·공생정책 시급

물량감소, 덩핑경쟁, 원가급등, 수익성 악화, 자금난이란 5중고에 직면한 전문건설업계의 활로는 저가수주를 자제하는 길뿐이란 진단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4일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5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물량감소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10.75%, 1980년대 12.41%, 1990년대 3.08%, 2000년대 1.37%로 급격히 둔화했다. 특히 2005년~작년까지 7년간 -1.06%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문업계의 작년 계약액도 70조9908억원으로 전년보다 5.0%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2008년(71조5562억원)보다 적었다.

전문건설사 폭증은 물량감소 충격을 배가한다. 작년 전문업체 수(4만7973곳)가 사상 처음으로 2.2% 감소했지만 계약물량 감소폭(5.0%)이 2배 이상 컸다. 1사당 계약액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5억5000만원이었지만 2010년 15억2000만원, 작년 14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급증한 업체 수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 중심의 낙찰제 아래 가중된 원도급사의 원가부담 가중과 맞물리면서 하도급사의 경영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적격심사는 80%대 중반, 최저가입찰은 70% 초반의 낙찰률을 보이지만 현행 실적공사비 아래 실질적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0% 수준이란 분석이다. 이런 상황 아래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줄 때 실제 공사 실행률은 예가 대비 40% 선으로 곤두박질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하도급 공사 실행 부진의 이면에는 덩핑경쟁이 자리한다. 전문건설협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공사 저가투찰의 최대 원인으로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란 답변(51.1%)이 꼽혔다. 인력, 장비를 구조조정하기 힘든 탓에 고정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저가투찰한다는 답변도 29.6%에 달했다.

이에 더해 건설용 자재가격마저 급등했다. 건설용 원자재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급등하면서 최근 5년간 50% 이상 상승했다. 전문건설업계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건설근로자 임금, 즉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도 2009년 1분기 73.5에서 올해 2분기 43.2로 악화했다.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 아래 깎이고 깎인 원가의 종착지 중 하나가 바로 전문건설업종인 탓이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공사를 따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란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확실한 업황은 금융권 자금조달마저 어렵게 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낮고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한 탓에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최하위로 꼽히는 현실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대안은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찾아야 하며 유일한 길은 저가수주 지양뿐이다. 저가수주 관행이야말로 건설업 침체 상황을 가속화하고 시장 전체 질서를 교란하는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나아가 과도한 전문건설 현실을 고려한 기업 차원,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에 더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업계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의 건설수요 창출을 위한 SOC투자 확대 등의 노력과 공생발전을 촉진할 정책, 그리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